

광주시내 간판 절반 이상이 불법

56%(6만1천개)로 전국 광역시중 최고

전남은 불법 간판 6년만에 20배나 늘어

광주시내 10만9천여개의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2%(6만1천여개)가 불법으로 그 비율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불법률은 38%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최근 6년동안 불법 간판 증가폭이 20.7배에 달해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전체 옥외광고물은 2001년(332만75개)에 비해 31% 가량 늘어났으나, 전남은 13만9천864개에서 13만1천688개로 유일하게 5.8% 감소했다.

전국의 불법 광고물을 유형별로 보면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으로 분류된 광고물이 55%(121만개)였고, 수령초과(16%), 혐사처벌(징역 1년 이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9개 도 가운데에서는 충북의 불법 간판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57%, 경남 53% 순이었고 전남은 38%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조선대 '장기발전계획 2015' 선포

경영·핵심전략, 20대 관리지표 발표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장기발전계획 2015'를 확정, '제6회 장미축제' 첫 날인 지난 16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조선대가 새로운 비전으로 정한 '프라이드 조선(Pride Chosun·엠블렘)-창조의 중심, 지역의 희망, 미래의 리더'는 7개 경영전략과 7대 핵심전략, 20대 핵심관리 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7대 경영전략은 ▲투명한 경영 ▲

데 219만8천276개(51%)가 불법 간판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시의 경우 10만9천612개 중 56.2%인 6만1천548개가 불법으로 광역시 가운데 불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은 불법률이 56%, 서울과 대구는 55%였고 대전이 38%로 가장 낮았다.

전체 옥외광고물은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은 완전 정비한다는 목표하에 오는 12월까지 1단계로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자진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등 제재를 면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기간내에 정비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혐사처벌(징역 1년 이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기반 확충과 복지 향상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장기발전계획

의 추진상을 점검하기 위한 20대 핵심관리 지표는 교육(4가지)·연구(6가지)·학생(5가지)·국제화(3가지)·재정(2가지)부문으로 분류됐다.

조선대는 또 지역별전 전략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첨단부품소재, 생명공학, 문화정보 등 3개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으며 2008년 후반기에 교내 자유공모를 통해 2개 분야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하지만 전남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지난 2001년 2천327개에서 지난해 10월 말 현재 5만483개로 6년여동안 무려 20.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증가폭은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24.2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전체 옥외광고물은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은 완전 정비한다는 목표하에 오는 12월까지 1단계로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자진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등 제재를 면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기간내에 정비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혐사처벌(징역 1년 이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지난 17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서 시민들이 '오월 정신 계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금남로 美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중·고생 수천명 참석

대량 결석 사태는 피해

중·고생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교육 당국을 긴장케 했던 '17일 휴교령'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16~17일 광주 도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는 많은 중·고생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일반주택 483가구와 국민임대주택 711 가구 등 1천194가구가 태양광 주택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를 태양광 주택의 전력 설치 용량은 1천363㎾로, 주민 1천명당 설치 용량(0.943㎾)이 전국 시·도 가운데 충북, 전남, 전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일사량이 전국 평균보다 21% 가량 높은 장점을 활용해 2002년부터 1천500여억원을 들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 '슬라시티'(Solar City) 건설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일사량이 전국 평균보다 21% 가량 높은 장점을 활용해 2002년부터 1천500여억원을 들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 '슬라시티'(Solar City) 건설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로 학생 지도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17일 휴교령'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무단 결석' 처치된다는 사실을 숙지시켜 실제 대량 결석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했다.

촛불 문화제가 예정된 17일 밤 광주 금남로는 5·18 전야제 행사와 맞물리면서 수 천명의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 이날 행사 참여 인원 1만5천여명의 절반이 중·고생들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에서도 1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태양광 주택

1천194가구

광역시중 최다

광주시의 태양광 주택 보급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일반주택 483가구와 국민임대주택 711 가구 등 1천194가구가 태양광 주택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를 태양광 주택의 전력 설치 용량은 1천363㎾로, 주민 1천명당 설치 용량(0.943㎾)이 전국 시·도 가운데 충북, 전남, 전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일사량이 전국 평균보다 21% 가량 높은 장점을 활용해 2002년부터 1천500여억원을 들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 '슬라시티'(Solar City) 건설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일사량이 전국 평균보다 21% 가량 높은 장점을 활용해 2002년부터 1천500여억원을 들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 '슬라시티'(Solar City) 건설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일사량이 전국 평균보다 21% 가량 높은 장점을 활용해 2002년부터 1천500여억원을 들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 '슬라시티'(Solar City) 건설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소방본부 '등산목 안전 지키기'

등산로 표지판 정비·구조대원 전진 배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등산객 안전을 위해 19일부터 무등산 등 광주 지역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구조·구급대원들을 전진 배치,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는 23개의 위치표지판과 간이구급함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산로에 있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안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악위치표지판에는 산의 명칭과 현 위치, 표지판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 응급상황때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 등을 표시해 응급상황때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또 이달 말까지 주요 등산로에 구조·구급대원을 전진 배치해 산악사고에 대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산불 예방 및 산악사고 예방 요령 등을 홍보하고 구조대원들은 사고가 잦은 등산로에서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난을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표지판을 살펴 신고하면 신속하게 구조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학력 높을수록

광우병 우려 커

학력이 높고 광우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광우병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북대 김미라 교수팀에 의해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학력이 대졸(대학 포함) 이상으로 높을수록 광우병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전국 6대 도시 소비자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40대 선장 부부 선실서 숨진채 발견

여선 선실에서 40대 선장 부부가 숨진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30분께 해남 시내도 앞 해상에서 목포선적 연안복합어선(7,938t) 선장 신모(41)씨와 부인 강모(40)씨가 선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선원 이모(29)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16일 밤 10시께 선장 등이 선실에 들어간 뒤 다음날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선장 신씨와 강씨는 사흘 동안 관계에 있는 부부로 알려졌다.

/해남= 브친포기자 lucky@

장애인·노약자 전용 콜택시 운행

광주시 9월부터…일반 택시 요금 35%로 이용

오는 9월부터 광주시내에 교통약 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가 달린다.

광주시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교통편의를 위해 전용택시 10대를 도입,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약자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를 오는 2011년까지 80대로 늘리고 저상버스도 2012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용객은 일반 택시 요금의 35% 가량만 부담하며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택시 운행비 등은 시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보람상조와 함께 할 세가족을 모십니다.

특집 모집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제2회 모집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광시 특집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 보람상조는 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험 상조 회사입니다.